李대통령 집권 2기 9·3 중폭 개각

지역·계파 고루 안배…통합에 방점

젊어진 내각…개혁·변화 의지
'정운찬 총리 카드' 정치권 파장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임 국무총리에 충청 출신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중폭 개각을 계기로 집권중반기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정운찬 전 총장을 '국정 2인자'로 지명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 지형은 물론 차기 대권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개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통합과 개혁 중점**=이 대통령이 내놓은 이번 개각 카드는 우선 통합과 개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 총리 내정자가 충청 출신인데다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던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의 총리 카드가 무산되면서 '호남 총리'를 심각하게 검토한 것도 이번 개각이 '화합과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 총리 내정자가 17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될 정도로 개혁과 진보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중도실용으로의 국정 방향 전환을 위한 개혁에도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개각으로 총리를 포함해 영남권 5명, 수도권과 호남권 각 4명, 충청권 3명, 제주 1명 등 내각 진용의 지역안배가 이뤄진 것도 같은 통합형 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60대 초반의 총리를 기용하고, 새로 입각한 장관 6명 가운데 5명이 50대와 40대라는 점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국정드라이브 '가속'**=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으로 집권 중반기 내각 진용을 완비하면서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각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발표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홍보, 정책, 정무의 3대 기능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정치인 기용을 포함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기의 '효율적 국정운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밝힌 정치개혁도 이번 개각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각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는 것은 물론 생산적 개헌 논의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치권 격동 예고**=그러나 이날 개각으로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국 반전을 노린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청문회부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잠재적 대권 후보인 '정운찬 총리 카드'는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권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청 총리'를 내정한 것은 가깝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멀게는 차기 대선도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정치권 격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9. 3 개각후 내각 명단 (* 은 신임 각료)

부처명	이름(연령)	출생지	출신대	주요경력
국무총리	정운찬(63)*	충남 공주	서울대	서울대 총장
기획재정부	윤증현(63)	경남 마산	서울대	금융감독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68)	충북 괴산	서울대	미래기획위원장
외교통상부	유명환(63)	서울	서울대	주일대사
통일부	현인택(55)	제주	고려대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
법무부	이귀남(58)*	전남 장흥	고려대	법무부 차관
국방부	김태영(60)*	서울	육사	합참의장
행정안전부	이달곤(56)	경남 창원	서울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58)	전북 완주	중앙대	서울문화재단 대표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60)	전남 무안	서울대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지식경제부	최경환(54)*	경북 경산	연세대	한나라당 수석 정책조정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60)	경북 영천	영남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환경부	이만의(63)	전남 담양	조선대	환경부 차관
노동부	임태희(53)*	경기 성남	서울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여성부	백희영(59)*	서울	미 미시시피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국토해양부	정종환(63)	충남 청양	고려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특임	주호영(49)*	경북 울진	영남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천관산 자락 시골마을 "경사났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고향 축제 분위기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발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후 천관산 자락 20여가구에 50여명이 살고 있는 이 후보자 고향 장흥군 대덕읍 영보마을 주민들은 일제히 "우리마을 경사났다"며 축제 분위기에 빠져 들었다.

마을 이장 김재순(59)씨는 들녘에서 일을 하다 읍사무소에서 걸려온 핸드폰으로 이 법무장관 내정 소식을 듣고 곧바로 플래카드를 주문했다. 김 씨는 "무엇하나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장관직에 올랐다니 이루 말 할수 없이 기뻤다"며 "특히 평소에 겸손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어느누구에게도 격의없이 자세를 낮추는 이 후보자의 인간미가 빛을 보게 됐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장관 후보자는 이마을에서 이재동씨와 김예심(84)씨의 3남3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일찍 작고하는 바람에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 대덕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사는 작은아버지 도움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암자 등에서 고시공부에 전념, 시험에 합격했고 마침내 장관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 장관 후보자는 대덕중학교를 12회로 졸업한 후 올해까지 37회째 모교에서 개최되는 동창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누구 보다도 고향을 아끼고 친구를 사랑하는 애향심이 강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총리·6개 부처 장관 후보자 프로필

정운찬 총리 서울대 총장 지낸 소신파 경제학자

청와대가 3일 차기 총리후보자로 발표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30년 넘게 상아탑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활동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 다양한 저술활동을 병행하면서 지명도를 쌓았고, 10여년전부터는 정·관계의 영입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1998년 한국은행 총재직을 맡아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고사한 이래 정 전 총장은 개각 때마다 경제관련부처의 수장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당시 여야 정당 모두가 정 전 총장의 영입에 뛰어들 정도였다. 특히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정 전 총장을 만나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온화한 성품으로 친화력이 뛰어나지만, 소신파 학자 출신인만큼 향후 경제분야에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 경제팀과의 조화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다. 야구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충남 공주(63)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미국 컬럼비아대 조교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서울대 총장 ▲한국경제학회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대검 공안·중수부장 두루 거쳐

이귀남 법무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중수부장을 잇따라 맡을 정도로 특수·공안·형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 분야를 두루 거치며 야전 경험을 쌓았다.

적극적이고 집념이 강한 원칙주의자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인화력도 뛰어나 부하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 지난 7월10일 법무차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두달도 안돼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장흥(58·사법시험 22회)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3과장 ▲대통령 사정비서관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부장 ▲대구고검장 ▲법무부차관

야전·외교·전략 폭넓은 경험

김태영 국방 야전지휘관과 육군사관학교 교수, 외교 및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력을 보유한 문무 겸비형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담당관과 일선 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군 사령관 등 군내 핵심보직을 두루 섭렵하고 합참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통역 없이도 숱한 국제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탁월한 영어실력을 지녔다.

▲서울(60) ▲육사 29기 ▲6포병 여단장 ▲2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제1야전군사령관 ▲합참의장

친박 재선의원…당내 경제 전문가

최경환 지경 경제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내에서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 당시 이명박 당선자의 신임을 얻으면서 현 정부 출범 후 개각 때마다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현안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견해를 개진하는 편이고 업무에서도 선이 굵다는 게 주변 사람의 설명이다.

▲경북 경산(54)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보좌관 ▲17, 18대 국회의원

정통 경제관료 출신 MB 최측근

임태희 노동 재무부 관세국과 재무정책국, 청와대 금융담당 행정관 등 재정·세정·금융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3선 중진의원. 대선후보 경선 이후 대선후보 및 당선인 비서실장에 발탁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올랐다. 신중한 성격과 처신에 입이 무거워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우나 정치인으로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경기 성남(53)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24회 ▲재경부 산업경제과장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16.17.18대 의원

국내 식품영양학 최고 전문가

백희영 여성 대한가정학회 회장과 한국영양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주로 질병과 영양의 관계, 한국인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 업적을 많이 인정받고 있으며, 제자들 다수가 전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영양학계에서 영향력도 큰 편이다. 영양학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 국가 영양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울 출생(59) ▲경기여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미국 하버드대 영양학 박사 ▲서울대 교수(현) ▲대한가정학회 회장 ▲한국영양학회 회장

법조인 출신 불교계 두터운 인맥

주호영 특임 부장판사 출신으로 해박한 법률지식과 두터운 불교계 인맥을 가진 재선 의원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삼고초려 끝에 비서실장으로 영입했으며, 이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하다.

특히 법조인 출신이면서도 불교계 인사들과 두터운 교분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 울진(49) ▲영남대 법학과-영남대 대학원 ▲사시 24회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명박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